

라식·라섹 어렵다면 'ICL' 어때요?

(안내렌즈삽입술)

각막 손상없이 수정체에 렌즈 끼워 근시·난시 함께 해결...효과적 교정

안내렌즈삽입술

시력저하로 렌즈나 안경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라식수술에 대해 생각해봤을 것이다. 안경과 렌즈의 불편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안경이나 렌즈를 끼지 않아도 맑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같은 일이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각막이 얇거나 오랜 렌즈착용으로 각막이 약해져 있는 경우 라식수술은 불가능하다. 실제 안과에 10명 중 1명은 각막상태가 약해 라식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최근에 눈 속에 렌즈를 삽입하는 간단한 시술로 이런 불편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 ICL(안내렌즈삽입술)시력교정수술에 대해 알아 보았다.

◇안내렌즈삽입술이란?

10년 동안 콘택트렌즈를 착용했던 이모씨(33)는 각막상태가 약해 라식수술이나 라섹수술 등 레이저로 각막을 절삭하는 시력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그러나 눈 속에 렌즈를 삽입해 시력을 높여주는 ICL수술을 받고난 후 지금은 콘택트렌즈를 빼고, 교정시력 1.2를 회복해 환자 스스로 매우 만족하고 있다.

ICL은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고 원래의 수정체 위에 렌즈를 삽입해 시력을 회복시키는 시력교정수술이다.

라식이나 라섹과 달리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이 아니므로 각막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시력 회복이 가능하다.

라식은 레이저나 미세칼날로 각막을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각막 두께가 일정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시력교정수술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라식이지만 이미 렌즈를 오래 착용하여 각막이 얇아졌거나, 각막은 두껍지만 초고도 근시인 경우는 라식수술을 받기 어렵다.

ICL은 레이저수술로 많은 양의 각막을 제거해야 하는 위험이 따르는 고도근시의 경우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력교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ICL은 각막손상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필요에 따라 렌즈를 제거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력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난시교정용 ICL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시와 난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또 통증이 덜하고 수술 이후 다음날부터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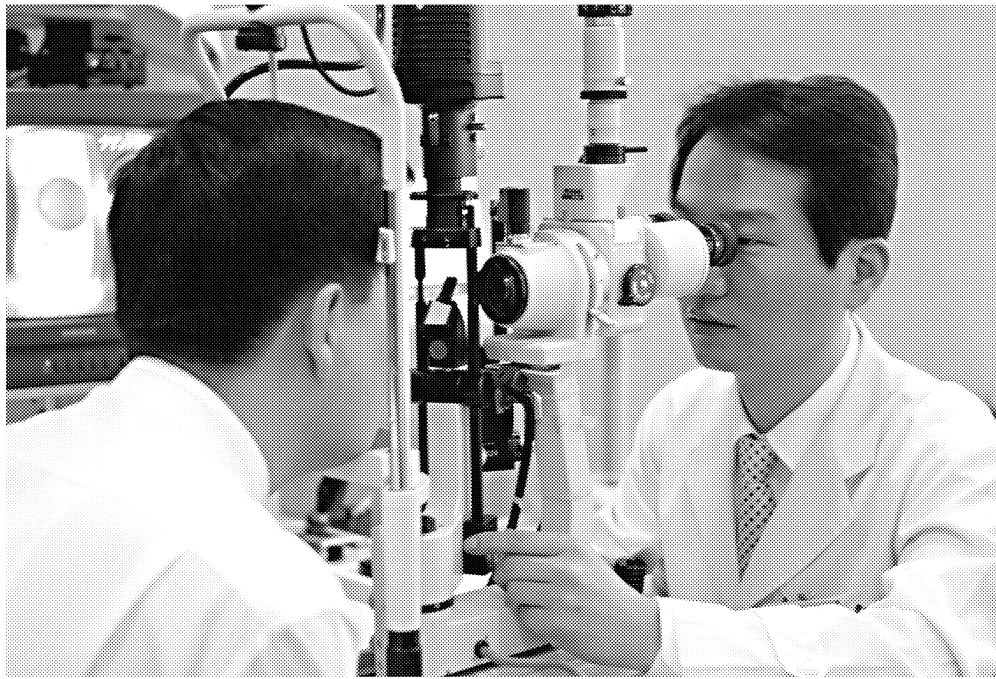
라식 및 라섹수술과 달리 수술 후 빛반점이나 눈부심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안내렌즈삽입술의 대상과 수술과정

눈 속에 렌즈를 삽입하는 렌즈삽입수술대상자는 라식이나 라섹을 받기에 시력이 너무 나쁜 사람과 시력에 비해 각막 두께가 얇은 환자다.

렌즈삽입수술은 크게 전방에 삽입하는 ICL렌즈와 후체에 고정시키는 알티스렌즈, 알티플렉스 렌즈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수술 시에는 라식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렌즈 삽입술 중 사전 정밀 검사를 통해 적합한 수술법을 찾게 된다.



선천적으로 각막이 얇거나 오랜 렌즈착용으로 각막이 약해져 있는 경우 라식수술이 불가능하지만, 간단한 렌즈삽입술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때 사람마다 눈 상태가 모두 달라 본인 눈에 가장 잘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게 된다.

ICL 시력교정수술은 간단히 눈에 맞춰 점안액을 넣은 뒤 약 20분 정도의 수술시간이 소요된다. 대개 수술을 위해 투여한 산통제의 효과가 풀리는 4~24시간 내에 좋아진 시력을 확인할 수 있다.

수술 후 운동을 과격하게 할 경우 삽입한 렌즈가 제자리를 벗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연안과병원 조용운 원장은 "ICL수술이 라식, 라섹 등의 시력교정수술에 비해 비용이 고가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떤 수술보다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안정적으로 좋은 시력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리=고광민 기자 /도움말=이연안과병원 조용운 원장

ICL수술 특징·장점

- 라식이 불가능한 초고도근시나 각막 두께가 얇은 경우에도 시술 가능.
- 근시회행이 없으며 선명하고 안정적인 시력 유지.
- 라식 관련 부작용이 없음.
- 안구건조증이 악화되지 않고, 야간 눈부심이나 빛 번짐 등의 불편함이 적음.
- 원거리와 근거리 조절능력의 상실 염려가 없고, 망막박리 위험성이 감소됨.
- 문제가 생길 경우, 렌즈를 제거하면 수술 전 눈 상태로 복구가 가능.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연안과 병원명 공모

광주 이연안과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 전문병원 선정을 기념하고 21세기 글로벌 안과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병원명을 새롭게 교체한다고 18일 밝혔다.

병원명은 공모전을 통해 변경하며 공모기간은 다음달 16일~20일 까지 홈페이지(<http://www.eyecare.co.kr>)에서 공모전 신청서를 다룬받아 공모하면 된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2등 2명에게는 50만원, 3등 3명에게는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 당선자 발표는 4월27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선대병원 심장혈관센터

‘중재시술 인증기관’ 선정

조선대병원은 심장혈관센터가 대한심장학회 심혈관 중재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중재시술 인증 평가에서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중재시술 인증제는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중재시술 영역에서 전문적 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중재시술의 환경과 시설, 장비, 인력, 연간 시술건수 및 검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

한 심의와 평가를 통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중재시술 인증제 자격기준은 1개소 이상의 심혈관 조영실 및 1개 이상의 혈관조영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처치 대비 대동맥 내 풍선캡틀 구비해야 한다.

또 실시간 현장 수술이 가능하거나 응급 때 병원을 옮겨 수술이 가능하도록 1시간 이내에 이송이 가능한 전문병원과 협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중재시술이 가능한 시술의가 2명 이상, 심혈관 조영실 전문 방사선사 1명 이상 및 간호사 혹은 임상병리사가 1명 이상 근무해야 하고 연간 총 100례 이상의 중재시술을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조선대병원 심장관센터는 2007년 9월 개소했으며 2017년까지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활동 예정이다.

조선대병원 교영업 심장혈관센터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조선대병원 심장혈관센터가 심장과 혈관 질환에 대해 양질의 수준 높은 의료 수행능력이 있다는 것이 검증됐다”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한경호 박사의 한방보감

우리 몸의 3가지 보배

정, 머리·척추·생식기관에 저장 기,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에너지 신, 정신통제...부족하면 마음의 병

동의보감에서는 우리 몸의 3가지 보배를 정(精) 기(氣) 신(神)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미완성된 3가지 보배를 가지고 태어나서 여자는 14세 남자는 16세에 이르러 정·기·신이 출만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게 된다. 20~40대에는 충만한 정·기·신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지만, 남자와 여자 모두 50세에 이르면 조금씩 부족해진다.

이후 100세 안에 모두 소모되어 자연스럽게 죽는다. 하지만 신선처럼 생활습관을 지켜서 정·기·신의 소모를 막으면 36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정(精)이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정과 성장하면서 음식을 잘 먹어서 만들어내는 후천적인 정으로 구분된다. 정은 대부분 몸의 뼈로 만들어진 구조(머리, 척추, 골반, 관절 등)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생식기관에 저장돼 정이 필요 하는 곳에 사용된다.

정이 부족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척추(목, 허리)가 아프고 고관절과 무릎이 시큰거리며 남자는 전립선과 여자는 자궁에 병증이 발생한다. 음식섭취가 부실해 정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음식의 섭취가 과하거나 몸에 해로운 음식을 많이 먹어 정이 혼탁해지고 있다.

기(氣)는 우리몸의 신진대사를 유지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어느 부위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 위기, 영기, 종기, 중기, 원기 등으로 불려진다.

기는 오르고 내림이 일제해야 하며 쉬지 않고 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기가 운행하지 못하고 막히게 된다. 이때문에 통증(두통, 견비통, 생리통, 흉통, 협통 등)이 나타나고 호흡이 나빠지거나 기능성 소화불량증상 등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지나치게 약물에 기대는 습관보다 운동(요가, 걷기, 수영)과 같은 생활습관으로 기에 자극을 줘야 한다.

신(神)은 정신적 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희·노·우·사·비·공·경이 이것에 해당한다. 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감정조절이 안돼 꿈을 많이 꾸며,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나타난다. 좋은 음식과 보약, 운동을 해도 신이 불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종교활동이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기만의 생활습관을 가지게 필요하다.

동의보감에서 병자는 평인으로 평자는 선인으로 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병자는 병증을 고쳐 병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병이 없는 평범한 사람은 신선처럼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보다 건강해지려면 자기의 건강과 연관이 되는 3가지 보배를 다스리는 꾸준한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대주한의원 원장

ISO 9001 인증업체

품질로 선택하시고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고품질의 트럭, 버스용 재생타이어 생산 전문업체■

(주)대호타이어

본사/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546-4번지
TEL.(062)953-8585~8 FAX.(062)953-8589

서울영업소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40-40번지
TEL.(031)792-3604 FAX.(031)791-5066

■타이어(금호, 한국, 수입)유통, 차량정비 서비스의 뉴-리더■

TIREnet 타이어넷(주)

본 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349-8번지
무로. 080-4254-001 FAX.(062)956-4263
<http://www.tirenet.co.kr>

서울지점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40-40번지
무로. 080-4254-000 FAX.(031)791-5066